데스크시각

김 일 환

광주일보 방송시대를 열며

내년으로 광주일보가 창사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60년간 호남 언론의 맏형으로 지역사의 현장을 지킨 광주일보가 창사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60년을 향한 변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문과 방송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말합니다. 신문 뉴스 보도에 그치지않고 방송에까지 영역을 넓히는 것이죠.

그 첫걸음으로 광주일보는 동아 미디어 그룹 종합편성TV 채널A와 함께 12월 1일부터 방송 뉴스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종합편성 채널은 지상파 방송과 동일하게 보도, 드라마, 예능, 교양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방송국으로 국내 TV 시청 가구 가운데 90% 이상을 차지하는 케이블 방송,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가입자라면 누구든지 시청할 수 있습니다.

본사 스튜디오 구축 완료

새롭게 시작되는 방송 뉴스 서비스는 2년여를 넘게 준비해온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채널A와 광주일보를 필두로 한 부산일보 경인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강원일보 경남신문, 전북일보, 제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 9개사가 협의체를 만들어 수많은 논의 끝에 협력체를 구축했습니다. 방송을 위한 역할을 분담하고 기술적인 난제들을 풀어가며 완성된 개국을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국을 1주일여 앞둔 현재, 채널A와 한신협 9개사는 공동보도를 위한 네트워크 체제를 이미 구축했습니다. 한신협 9개사에 보도와 대담,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마련돼 시험 가동에 들어갔고, 날마다 신문-방송 통합 뉴스들이 제작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일보도 최근 광주 동구 금남로 2가 무등빌딩 15층에 스튜디오를 완공하고 시험 가동중입니다. 본사에 시설된 방송장비들은 내년 전면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라 최첨단 HD 장비로 채워졌습니다. 이 HD 장비로 찍어진 영상은 그동안 안방에서는 볼 수 없었던 초고화질의 선명한 영상이 될 것입니다.

또 채널A 본사 뉴스 스튜디오와 실시간으로 연결, 생방송도 가능해 집니다. 이는 시시각각 일어나는 사건사고의 현장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이젠 100여 명의 광주일보기자들이 광주·전남 사건의 현장에서 신문기사뿐만 아니라 방송으로도 보도하는 공감각적인 뉴스를 독자 여러분 아니 시청자 여러분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광주일보 방송 뉴스 콘텐츠도 그동안 시도되지않은 새로움을 담게 될 것 입니다. 광주일보 채널A 방송뉴스는 지상파TV 뉴스와 차별화해 시청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심층성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일보 뉴스의 심장인 편집국도 새로운 변화에 따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우선 신문(광주일보)기자가 방송국 기자를 겸하는 편집국 통합뉴스룸으로 전환했습니다. 국내 어떤 언론사도 시도하지 못한 신문-방송 통합으로 신문의 심층성과 다양성, 방송의 속보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 편성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광주일보 채널A 방송뉴스는 다른 방송사보다 30분 먼저 시작합니다. "뉴스는 정시에 시작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시청자의 뉴스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메인뉴스를 오후 8시 30분에, 아침 뉴스는 오전 5시 30분에 방송됩니다. 또 지상파 뉴스의 '1분 30초 룰'에서 벗어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다양한 길이의 뉴스를 선보이며 심층성을 강화합니다.

신문-방송 통합 뉴스 쏟아져

12월 개국 이후 뉴스서비스가 본궤도에 오르면 머지않아 광주일보와 채널A는 향토 물산과 풍광, 그리고 뉴스 인물들을 소개하는 정보 프로그램을 제작, 시청자 여러분께 찾아갈 것입니다. 이미 광주일보와 채널A는 도상계획을 마무리하고 제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주일보 채널A 뉴스서비스는 단순한 방송 참여라는 의미 외에 광주일보 역사의 숙원인 전일방송 부활의 첫단추를 꿰는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본사의 자매사인 전일방송은 지난 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통폐합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번 신문·방송 융합은 지역방송 역사의 복원작업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올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독자라는 이름에 더하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키워나가야 겠다는 소명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호남의 정론으로 독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아온 광주일보의 새로운 60년을 향한 도전에 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의 뜨거운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집국 방송 보도부장 겸 여론매체부장〉

kih8@kwangju.co.kr

은펜칼럼

설렁탕과 통일연습

송 민 석

고향집에 들러 팔순 어머니를 모시고 읍내 식당에 들렸다. 평소에 당신이 좋아하시는 달짝지근한 야채 불고기를 사들일 생각이었다. 메뉴표가 보이지 않아 국물이 있는 소고기 전골을 주문했더니 갸름한 얼굴의 여종업원이 설렁탕이냐고 자꾸 되물었다. 몇 차례 실랑이를 벌이다가 주인을 불렀더니 북에서 온 종업원으로 의사소통이 부족했음을 사과했다. 통일교육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진 하루였다.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 이미 2만 3천여 명을 넘어섰다. 최근엔 연간 3천여 명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것도 어린이들과 젊은 여자들이 대부분이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내에 들어오는 탈북자가 한해 평균 10명 미만으로 영웅대접 받던 시절과는 사뭇 다르다. 북에서 온 그들은 대부분 일가친척도 없이 망망대해를 떠도는 느낌이 아닐까 싶다. 그들에게는 마음을 터놓고 공감해주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이 형식적인 인사치레에 그치고 깊은 대화는 외면하고 있음을 본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찾아온 조국이 야속하게 느껴지리라.

국내 탈북자 중 직장을 갖고 있는 자가 30%가 채 안 된다.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계유지비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다. 겨울철에 연료비를 아끼느라 냉방에서 생활하며 2등 시민으로 사는 경우도 흔하다. 이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자리 문제와 자녀교육 문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를 이어 2등 시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그들은 "북한에서는 배가고파 못살겠고, 중국에서는 언제 잡혀갈지 몰라 두려워 못살겠고, 대한민국에 오니까 몰라서 못살겠다"고 한다. '대한민국'이란 말도 남쪽에 와 처음 들어본 그들이다. 북에서는 '이남', '남조선', '아랫동네'로 부르기 때문이다. 입냄새를 제거하는 가그린을 음료수인 줄 알고 마신적도 있다고 한다.

통일의 그날, 탈북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인물이 아닐까 싶다. 그들은 남과 북의 중립적 입장에 설 수도 있고, 북한 주민들의 우리 사회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때 북한주민의 호감을 얻어야 한반도 상황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통제된 사회에서 주어진 일만 해오던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남북통합에 대한 준비과정으로 각종 사회단체나 일반 자원봉사단체를 만들어 이들을 끌어안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기업에서부터 탈북인을 시범적으로 채용하여 우리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주는 풍토조성이 절실하다. 우리 사회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이들에게 성공신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자. 이들이 우리 체제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통일을 대비하는 '통일연습'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그들을 따뜻하게 포용할 능력이 없다면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은 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최근 북한 휴대전화 가입자가 8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3개월 동안 무려 13만 여대가 증가한 숫자다. 자유를 찾아온 그들의 생활이 행복해 질 때, 그 소식은 북으로 날려 보내는 대형풍선이나 확성기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갖고 북한 전역에 전파될 것이다.

〈통일부 전남통일교육센터장·UNIST위촉입학사정관〉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 고

광주공동체가 뭉치고 있다

박 해 구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호가 강운태 선장을 중심으로 한데 뭉치고 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5·18민주화운동 삭제 철회를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제3차 연석회의가 개최된 지난 20일 시청 3층 중회의실은 일요일이고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졌음에도 200여 석의 자리가 가득 찼다. 개인적인 일들을 제쳐 둔 채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리려는 거대한 음모에 맞서기 위한 결연한 항해에 기꺼이 승선한 것이다.

사실 회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선 것이 사실이었다. 앞서 토요일 개최된 8인 공동대표단 회의에서는 범시민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하자는 결론이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나왔고 그 이후 제3차 연석회의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일요일 오후 2시에 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무척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연락을 받은 사회단체장들은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대리라도 참석시키겠다고 연락해왔다. 회의는 시종일관 진지하면서도 정부의 역사왜곡 의도를 규탄하는 강경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사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일, 교과부의 '2009 개정교육과정 집필기준 확정발표' 이후 신속하고도 치밀하게 대응책을 강구하였다. 10일엔 광주시장과 시의회의장, 시교육감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여 5·18정신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교육을 촉구했고 13일 제1차 연석회의개최, 14일 연석회의 대표단의 중앙부처 항의방문 및 수정요구안 제출, 15일 제2차 연석회의, 17일 공동대표단의 국회정론관 합동 기자회견 등이 잇따라 열렸다.

그 결과 교과부는 17일에 '중학교 역사 세부검정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적·사회적으로 인정된 주요 역사적 사실(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 항쟁 등)은 충실히 반영하도록 한다는 회신을 보내 오기에 이르렀다. 실로 광주공동체의 저력과 전광석화 같은 대응에 정부가 일부 항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광주의 힘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기어코 집필기준을 변경시켜야 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집단으로 상경하여 청와대 앞에서라도 광주의 힘을 과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당장 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집필기준이 변경될 때까지 농성에 돌입 하자는 강경론도 있었다.

광주의 위기 앞에 광주공동체는 하나였으며 광주 발전을 위하는 길에 보수도 진보도 따로일 수 없었다. 시민사회단체가 앞장서야할 일에 광주시장이 이렇게 신속히 대응하고 이끌어준 데 대한 감사에서부터 5·18단체가 상호 불신과 분열을 봉합하고 하나의 단체로 거듭날 때 정부가 5·18 정신을 왜곡하지 못할 것이라는 충정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광주공동체가 언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광주 문제를 걱정해본 적이 있느냐며 이런 자리에 참석한 자체가 행복하다고도 했다.

어느 50대 남자는 대학시절에 5·18을 경험하고 객지에서 군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때 광주사람들에 대한 폄훼된 시각과 차별에 분통과 울분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살아왔는데 광주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이렇게 광주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걸 보니 목이 멘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성명서를 낭독할 때는 200여 명의 사회단체장이 모두 일어나 오른손을 불끈 쥐고 힘차게 합창하며 동참하였고 회의가 끝나고 나갈 때는 서로 정겨운 눈빛을 교환하며 신뢰의 악수를 하는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웠다.

광주공동체는 하나였다. 역사의 고비마다 분연히 떨쳐 일어나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잡았던 광주가 지금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5·18민주화운동 집필기준 삭제철회를 위한 대응이 계기가 되었지만 광주공동체의 저력을 보여준 쾌거였다.

행복한 창조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왔다고 본다. 147만 광주 시민이 똘똘 뭉쳐 광주 발전의 대열에 동참할 때 광주는 힘찬 날갯짓을 하고 비상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 시민소통과장〉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인터넷 유포 강력 규제해야

예전에 텔레비전 뉴스에서 택시를 탄 여성이 택시기사에게 가방을 뺏겼다며 그를 강도로 신고한 내용이 나왔다. 그러나 뉴스의 진짜 내용은 이 여성이 허위로 신고한 것이고, 그 택시기사는 택시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통해 그 여성이 애초부터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만약 택시 안에 블랙박스용 CCTV가 달려있지 않았다면 택시기사는 누명을 벗는데 아주 큰 고충을 겪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누명이나 혹은 교통사고시 분쟁을 막기 위해 택시 안의 CCTV와 그걸 기록하는 블랙박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인정한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을 보면 택시 안에서 촬영한 승객들의 장면이 소위 '진상 승객' 또는 '진상 남녀' 등의 제목으로 동영상이 유출돼 나돈다.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혹시 내가 저런 택시에 걸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 인터넷에 퍼질까 두렵기만 하다.

도로상에서 과속을 할 경우 속도위반 차량을 자동촬영해 벌금을 부과하는 단속카메라가 있다. 그런데 단속카메라가 운전자만 찍는 게 아니라 조수석도 함께 찍힌다. 하지만, 사생활 보호를 위해 조수석은 무조건 흑색으로 가린 뒤 위반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다.

이 정도로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판국에 택시 안에서 찍힌 동영상이 인터넷에 나돈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승객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택시회사의 자체적 노력은 물론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강성구·광주시 동구 운림동

사 설

한·미FTA '날치기' 국가 장래가 걱정이다

한나라당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 의원들의 강력 저지 속에 비준안을 표결에 부쳐 전격 통과시킨 것이다.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는 우리 정치의 수준이 여전히 후진성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정치의 중심에 떠오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국 경색도 불가피하다. 야당이 국민을 무시한 '날치기 처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해 예산안 심사도 제대로 될 지 의문이다.

국론 분열도 걱정이다. 한·미FTA 비준에 따라 직격탄을 맞게 되는 농민과 자영업자 반발 등 나라 전체에 미칠 후폭풍과 부작용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전남지역만 하더라도 1조4천억 원의 농가 소득 감소가 예상된다. 이 가운데 축산농가 피해액이 1조5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니 축산업 붕괴는 불 보듯한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FTA의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에 따른 보완과 피해 대책이 없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농축산업과 자영업 등 한·미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논란의 초점이 됐던 'FTA 발효 후 투자자-국가소송제(ISD)'도 재협의를 통해 독소 조항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정치권 역시 FTA를 새해 예산안 심사와 연계해 거부한다면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다. 특히 지역 정치권은 정국 경색을 이유로 지역 현안예산 확보에 소극적이거나, 한나라당 단독의 예산안 날치기 처리를 막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응당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오락가락 정책에 흔들리는 광주교육

광주시교육청의 '갈 짓자' 교육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그동안 우수학생 중심, 입시위주 교육을 교육을 금지해왔으나 정작 대학 정시모집을 앞두고 '서울대 논술반' 운영하는 등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21일 광주지역 고3 학생 29명을 대상으로 서울대 정시 대비 논술 교실 운영에 들어갔다.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 공교육 신뢰도 제고 등이 그 배경이다.

하지만, 이는 교육정책의 성패를 수도권 대학, 특히 서울대 진학 위주로 가늠하는 현실을 의식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교육청이 장휘국 교육감 체제 출범 이후 실질적인 첫 평가라 할 수 있는 올 대학입시 성적에 연연한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심화반 편성과 자사고의 입학 전 선행학습을 규제해 왔다. 더욱이 서울대, 연·고대 등 이른바 'SKY'대 진학을 알리는 홍보물을 학교에 게시하는 것마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시교육청이 서울대 논술반을 운영하는 것은 '지나친 입시경쟁교육 지양'이라는 현행 정책과 정면 배치된다. 일선 학교에서조차 "그동안 보편·평등 교육을 고수해온 시교육청이 서울대 수험생만을 배려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 상반기 실시한 논술교실의 경우 수시에서 논술을 치르는 대학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정시에서 유일하게 논술을 보는 서울대 대비 과정이 빠져 있어, 이번에 별도 운영할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역시 납득이 안 된다. 정시에서 논술을 보는 대학은 서울대 등 5개 대학이기 때문이다.

실력 향상을 위한 서울대 논술교실 운영을 나무랄 사람은 없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해선 일선 교단의 혼란을 부추기고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공시성(共時性-Synchronicity)에 큰 관심을 가졌던 헝가리 출신의 영국 소설가 아서 케스틀러(Arthur Koestler)는 '도서관의 천사(The library angel)'라는 단어를 만들어 냈다. 서재나 도서관 등에서 머리를 싸매고 무언가 조사를 하고 있노라면 운 좋게도 필요한 정보가 바로 그 순간에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운을 가져오는 미지의 힘 또는 미지의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찾거나 알고자 할 때, 심지어 자신이 무엇을 찾으려 하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문득 그 것을 알려주는 존재가 도서관의 천사다. 우연히 뽑아든 책을 무심코 펼쳤을 때, 그곳에 바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쓰여 있다면 바로 도서관의 천사를 만난 것이다.

도서관의 천사

밴쿠버에서 활동하는 작가이자 정치 만평가인 제프 올슨(Geoff Olson)은 그의 칼럼에서 '글감을 찾기 위해 잡지 더미를 뒤지다가 결국 포기하고, 책장에 잡지를 다시 꽂던 바로 그 순간, 찾던 잡지가 책장위에서 떨어져 자신의 발치에 펼쳐졌던'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스위스 태생의 심리분석가 칼 융(Carl Jung)은 자신이 만들어낸 '공시성'이라는 말에 대해 "서로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두 사건이 '의미 있게' 전개되는 배후에는 알지 못할 우주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 무언가를 우연이라고 여기는 것은 우주의 섭리에 무지한 때문이며, 섭리에 눈을 뜬 사람은 늘 벌어지고 있는 우연이란 잔치를 '아는 미소'와 함께 즐긴다."고 설명하고 있다.

요즘 정치판의 화두는 혜성처럼 나타난 박원순과 안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태정치에 지치고 어두운 미래에 전전긍긍하던 사람들은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이들의 활약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썩을대로 썩은 정치를 단죄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서관의 천사들은 '필연적인 우주의 섭리'에 따라 안철수와 박원순이라는 선물을 보낸 듯하다.

/홍행기 정경부차장 redplane@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